

스마트 폰으로 충남관광 정보를 한눈에...

- 충남도, QR코드 활용, 모바일 웹 서비스 시범 실시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충남의 주요 관광정보를 만날 수 있다!!

충남도는 2월 23일부터 충남의 주요 관광정보를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QR코드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 주소는 <mtour.chungnam.net>이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웹은 충남의 관광지, 축제/체험, 관광코스, City 투어, 인삼엑스포 등 크게 다섯 가지의 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광코스 메뉴를 선택하면 백제문화권 등 6개 권역별 관광코스를, City 투어코스를 클릭하면 천안 등 7개 시·군의 투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삼엑스포 메뉴에서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접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 모바일 웹 서비스가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펴내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이 최근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발간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내재적 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를 위한 농촌주민의 주체적 노력들 가운데 대표적 사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우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온 저자는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당사자인 농촌주민과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역량만큼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 세상을 바꿀 주체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

고 있다.

저자인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국제 경쟁력만이 살 길이라는 중앙정부의 경쟁력 지상주의로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따름”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쟁력보다는 ‘순환과 공생’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리더들의 헌신과 땀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인 등 서산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총 87건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 및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선진지 견학, 세미나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충남의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공공디자인센터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역의 인식 확산과 실천력은 미흡하다.”면서 “각 지자체장 면담을 통한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충남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충남의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를 ‘공공디자인 도약의 해’로 정하고 ‘2011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에 7억8천만원을, ‘2011 Sign 한마당’과 ‘제3회 공공디자인공모전’ 등에 9천만원을 투입하며, 청양대학에서 제4회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충남의 브랜드와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도청이전에 따른 ‘행복한 변화, 새

공공디자인을 통한 충남의 경쟁력 키울 터

-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개설
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충남 공공디자인의 컨설팅 및 자문 등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센터장 권영현)’가 개설 2주년을 맞았다.

이에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이하 ‘공공디자인센터’)는 2월 23일 전양대학교 취업매직센터에서 충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 충발연 박진도 원장, 전양대 신숙원 부총장, 그리고 학계전문가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공감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공공디자인센터는 지난 2년간 천안시 공공벽화 디자인, 논산시 청사마당 공원화 계획 및 청사 상징탑 디자인, 계룡시 다목적체육관 색채디

로운 얼굴'인 충남도의 CI를 교체하기 위해 디자인연구용역을 오는 7월 착수하여 내년 4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및 기념심포지엄 개최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순환시스템 구축할 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송두범)가 2월 15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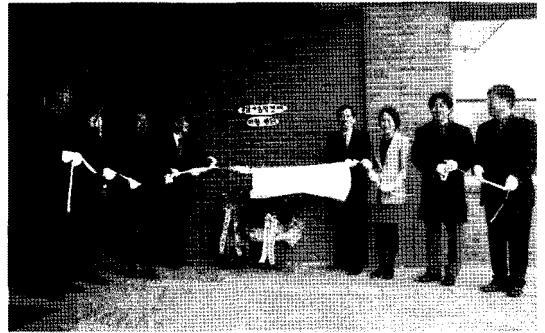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 부설로 설치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영역의 기반확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순환형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충남형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발굴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책의 통합적 지원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기업 선정 작업과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총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소식에서 송두범 센터장(충남발전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사회적경제라는 의미가 생소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지원과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순환형 공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기념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김성기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구축과 해체되어가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씨즈 이은애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충남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사회적경제TF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나, 권역별 격차 심화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에 따른 활력 저하 및 발전기반 취약 등은 위협요인"이라면서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전략 분야 발굴과 함께 유형별 지원 방안을 시스템화하는 한편,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정부-기관-기업-도민 등의 연계 사업 활성화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 심포지엄에는 충남대 경제학과 류동민 교수의 진행으로 권희태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김재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김성훈 민들레생협 상무이사, 박찬부 즐거운 밥상(사) 대표 등이 참석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총발연,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

- 제1회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주제로 스타트, 분과별 총6회 실시

2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은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첫 회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박진도 원장은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에서 도·시군·시민사회단체·농어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는, 농가소득 정체와 농업 소득의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농업과 농민의 현실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우리의 농업·농촌이 편입되어 있는 세계 농식품체계와 산업화된 농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먹거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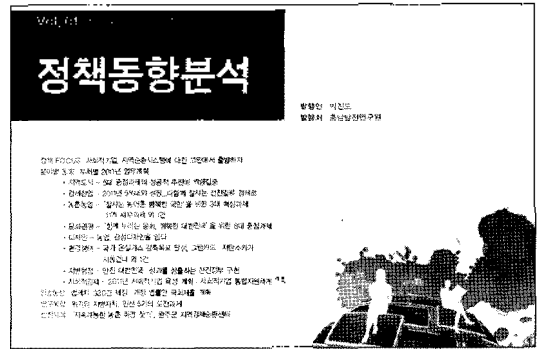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원광대 김홍주 교수는 학교급식 사안에서의 향후 실천과제는 지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 조례의 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논의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통한 물류나 지역농업 차원에서의 공적 역할을 제기하였다. 또 더 나아가 공공급식의 영역에서 공공성, 지역성, 복지성의 원칙하에 조달체계의 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총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로컬푸드 수단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들을 시행해볼 것을 제안하고, 지역별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킹과 거버넌스 형성의 지원,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급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김용필 충남도 의원은 수도권 집중적인 농산물 유통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순화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거점유통센터가 필요하며, 지역농협과 지

자체가 지역 생산자조직의 멘토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은 이 분과별 농정 워크숍을 6회에 걸쳐 연속 시행한 후 농정 대토론회를 4월 26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FOCUS'를 통해서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단순한 정책동향안내 수준을 넘어설 예정이다.

충남발전연구원, 도·시군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동향분석' 창간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정책결정자나 관계 전문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정책동향분석'을 매월 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발전 박진도 원장은 "수많은 정책 정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결정에 이들 정보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동향분석'을 만들게 됐다."며 발행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동향분석'이 제공되는 정보는 연구원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경제, 지역도시,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분야별 정책동향과 최근의 입법동향, 연구동향, 선진사례, 그리고 '정책 FOCUS' 등 5가지이며, 온라인(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과 오프라인(발행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전년도 12월 29일(수)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포럼회원, 전문가, 충남도 및 시·군 갈등관리업무 관계관 등 80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갈등·분쟁현안 동향과 해결전망을 모색하고, 향후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충남도의 주요 갈등현안과 관련하여 최한규, 전오진, 이준건 박사 및 신기원 교수의 발제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법찾기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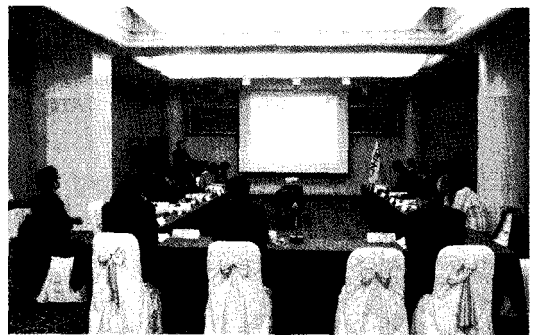
이어서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포럼운영 성과보고 및 김종문 충남도의원, 이주영 이임 상임공동대표 외 11명에 대하여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포럼 제3기 출범에 즈음하여 신임 상임고문 박진도 원장(충남발전연구원)을, 신임 상임공동대표 이은호 교수(공통대표 언론계(김승한 충청투데이 논설실장), 산업계(정지연 테크노세미캠프 대표), NGO계(정낙규 예산 지역개발위원장), 여성계(정준이 연기여성협의 회장)를, 그리고 상임운영위원장 최병학 박사를 각각 선출하여 포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2010. 11. 10) 제정으로 향후 포럼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2010년도 RHRD사업 최종보고회 및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

육과학기술부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2010년도 RHRD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는 2010년도에 수행된 '국제 휴양관광도시형 글로벌 사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D 입체영상 기술인력 양성과정',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민·군 겸용기술 특화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와 함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토론에서는 지역의 현안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충청남도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 대안도 다수 제안되었다.



최종보고회와 함께 진행된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워크숍에서는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역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충청남도 시·군 관계관들의 실무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워크숍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